

합격 후 1년 여 입사 지연...허송세월 어쩔니까

#

'코로나19'로 취업이 힘든 실정임에도 지난해 3월 광주지역 조그마한 제조업체에 합격통보를 받은 A(24·광주시 북구 문흥동)씨는 첫 월급을 받으면 부모님께 무슨 선물을 해야 할지를 고민했다. 하지만 그해 4월말까지 출근 날짜를 알려주지 않던 회사는 차이피일 미루더니 급기야 무기한 연기 통보를 해왔다. 회사측이 밝힌 무기한 연기 이유는 코로나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이였다. 결국 A씨는 1년이 지나도록 출근은 고사하고 다른 일자리를 구하지도 못한 채 발만 구르고 있다.

직장갑질119 '취준생 울리는 입사갑질 보고서' 보니

갑자기 채용 취소하고 정규직 공고 낸 뒤 계약직 변경
"연고 있느냐" "육아 어떻게" 면접과정 차별사례 적잖아
채용공고에 근로조건 필수 등 '채용절차법' 개정 시급

광주·전남고용시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더욱 불안정해졌고, 취업난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주·전남 구직자들은 채용과정에서도 부당한 대우를 적지 않게 경험하고 있다. 현행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채용절차법)이 부당한 '입사갑질'을 막지 못하는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4년째 대졸 취업자 감소는 지난해 3월 2000명 줄어든 이후 13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취업자가 광주 3만3000명·전남 1만9000명 등 5만2000명 줄어들며 통계를 낸 지난 1998년 이후 최악의 취업난을 기록하고 있다. 최악의 취업난 속에서 취업준비생들은 정규직 채

용공고를 보고 입사했으나 계약직으로 변경되는 등 각종 입사갑질까지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전문가, 노무사, 변호사 등이 활동하는 시민사회 단체인 '직장갑질119'가 내놓은 '취준생 울리는 입사갑질' 보고서에 구체적인 입사갑질의 내용이 담겨있다.

보고서에 담긴 입사갑질의 유형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갑자기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 ▲거짓·허위로 채용공고를 게재하는 경우 ▲채용공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변경(고용형태를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 또는 임금 삭감 등) ▲면접과정에서 차별적 발언을 하는 경우 등으로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직장갑질119'가 제시한 대표적 갑질 사례는 입사 면접 때 "이 지역에 연고가 있느냐? 육아는 어떻게 해결할거냐? 여자들은 육아 때문에 실적을 못 내는데"라는 질문 등이다.

특히 전화 합격 통보시 출근 일자와 필요한 서류·사내 근무복장을 준비하라고 안내해놓고도, 추후 연락을 통해 재면접을 봐야 한다거나 채용의사가 없었다며 채용을 취소하는 극단적인 사례까지 다양했다.

한 디자인 회사에서는 정규직 공고로 채용한 신입사원을 수습기간종료 후 계약직으로 바꾼데다, 그나마 1년 후 회사에서 계약을 재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갑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현행 채용절차법이 개정되도록 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제정(2014년) 후 한차례 개정됐지만, 여전히 현재의 법 내용만으로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입사갑질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문가들은 관련 법률에 ▲모집·채용에 대한 포괄적인 차별금지 규정 마련 ▲채용공고에 근로조건(특히나 고용형태 내지는 계약기간, 임금, 근로시간 등)을 반드시 명시 ▲워크넷 등 직업정보제공기관에 대해서도 거짓광고 등에 대한 처벌 등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다정 광주청년유니온 사무국장은 "채용공고와 다른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채용면접에서 노조 가입여부를 묻는 질문도 채용시 입사갑질로 볼 수 있는 만큼 법률의 개정과 제도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보행자·운전자 안전 위해

16일 광주시 북구 양산동 인근 도로변에서 북구청 공원녹지과 도시녹화팀 직원들이 도심미관과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전남대 공동연구팀, 남극에 중성자 관측기 설치 '한국 최초'

맥머도 기지서 장보고 기지로 이전...우주환경 국제 공동연구 가능

전남대학교 공동연구팀이 한국 최초로 남극에 중성자 관측기를 설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남대 우주선 지구과학교육과 교수를 책임자로 한 국내 우주선(宇宙線) 중성자 관측기 연구그룹은 한국 최초로 중성자 관측기를 극지연구소에서 운영하는 남극 장보고 과학 기지에 지난해 1월 설

치했다. 이같은 사실은 해당 업무를 수행했던 정종일 연구원(충남대)이 북반구의 여름에만 방문이 가능할 정도로 드나들기가 쉽지 않은 남극의 특수성과 '코로나 19'로 인해 비행기 대신 '아라온 호'를 이용해 야간 했던 현지 사정 등으로 올 3월에야 귀국하면

서 전해졌다. 이 중성자 관측기(neutron monitor)는 1960년부터 맥머도 기지에서 운영하던 것을 미국국립과학재단(NSF)의 후원으로 남극 장보고 과학 기지로 이전하게 된 것이다. 우주선 중성자 관측은 우주로부터 오는 입자에 대한 물리적인 특성의 이해로부터 학제 간 협동 연구를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극지 우주환경 연구를 중심으로 국제 공동연구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우주선(cosmic ray)은 우주에서 지구로 쏟아지는 높은 에너지를 가진 입자와 방사선을 총칭하며, 주로 양성자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우주선은 초신성 폭발 및 태양 활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오수연 교수는 "우주환경에서 고에너지 우주선 입자는 위성 및 우주선체의 장기적 운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미래 우주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우주선 관측 자료 분석 연구를 통한 우주환경 감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우주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인공위성 탑재 우주선 검출기의 관측 자료 활용에도 응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중기 성장 컨설팅

광주 북구 '성장지원단' 운영

광주시 북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 지원에 나선다.

북구는 이달부터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대일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기업성장지원단'을 본격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업성장지원단은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 수요에 대응하고자 지난해부터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와 협업해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성장지원·백년기업 도약·경영혁신 등 3대 분야에 대해 전문가를 통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먼저 기업성장지원 컨설팅은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을 찾아가 성장전략, 업종 고도화, 스마트공장 등 기업 경영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 상담을 실시한다. 백년기업 도약 컨설팅은 경영인 2세들로 구성된 백년기업포럼을 대상으로 장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업 성공사례 공유 및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로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북구경제중합지원센터나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코로나19 위기 속에 기업성장지원단이 기업 성장의 방향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창업보육센터 리모델링

호남대, 중기부 지원사업 선정

호남대학교 창업보육(BI)센터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고 (사)한국창업보육협회가 주관하는 '2021년 창업보육센터(BI)리모델링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BI센터의 보육환경과 기능을 개선해 입주기업뿐 아니라 센터의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호남대는 1억 3000만 원을 투입해 BI센터의 노후 시설 개보수 및 공유 상담실 신설 및 입주업체가 사용 중인 보육실에 대해서도 수요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힘쓸 계획이다.

호남대 김성수 BI센터장은 "창업기업에게 쾌적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해 우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초기 창업자 지원과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행정안전부 표창장 수상 창립 40th

힘이 되는 든든한 금융파트너

★ 정책 및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한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고 70%
대출한도
아파트 분양자금

최고 80%
대출한도
부동산 담보대출
(최고 **50억원** 한도)

최고 2,000 만원
(근로자 최고 1,500만원)
햇살론

MG 대광새마을금고

공과금 자동이체(기본 선물 증정) / 카드 체크기 무상 설치
각종 공제(암상해 화재 보험) 취급 / 문화센터 운영(탁구·요가·노래)

| 본점 | 062)222-5851 | 서남지점 | 062)227-1532 | 자산지점 | 062)222-1431